

존 오스왈트 박사, 출애굽기, 세션 13, 출애굽기 25-31

© 2024 존 오스왈트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출애굽기에 대해 가르치는 Dr. John Oswalt입니다. 13회, 출애굽기 25-31장입니다.

좋습니다. 지난주에 24장을 아직 끝내지 않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인봉 예식인 SEALING 후에 우리는 흥미로운 성약의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고대 세계의 정치적 계약에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그곳에서 일종의 인봉 폐막식으로 발견됩니다. 창세기 31장에서 야곱과 라반이 공식적인 맹세를 한 후 함께 식사를 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귀한 손님들을 초대하신다는 것은 그것의 상호성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답과 아비후가 이 모임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들, 즉 큰 두 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더 말하고 싶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성별된 후에는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매우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더니 그들이 드린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들을 태웠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거룩하심, 무엇을 보았든 이러한 경험을 했다면,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 이런 경험을 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는 그것을 더 잘 말할 수 없었다. 그들은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스며들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아, 와, 정말 훌륭했어요! 그리고 표면 아래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에 중점을 둡니다.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은 하나님의 성품과 성품이 그들의 삶에 참으로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부흥이 됩니다. 나는 작년에 자유감리교 부흥회 개회 설교에서 이것을 언급했습니다.

오늘날 웨일즈는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1905년에 웨일즈에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들은 경험을 하나님으로 대체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해 동안 목사로 있었던 내 친구는 오늘날 웨일즈 사람들에게는 찬송가를 부르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술집에서 50명의 술취한 남자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듣기 전까지는 찬송가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현실을 대체하는 경험의 꽤 고전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10절과 11절 모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묘사가 나와 있습니까? 없음.

없음. 설명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발 아래에는 포장 도로가 있습니다. 자, 혹시 이사야 6장을 보시면 이사야가 주님을 보았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설명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게 다야. 저는 이 사람들이 접시 모양의 눈을 하고 산 아래로 떠내려가는 것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글썄, 우리는 신을 보았다.

오, 진짜? 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의 발 밑에 있는 포장도로를 봐야 했어요. 글썄요, 그의 발은 어떻게 생겼나요? 아, 그 도로는 정말 대단했어요. 아, 도로에서 말이 멈춘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이사야는 성전 밖으로 떠오릅니다. 나는 주님이 높이 들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 예? 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당신은 그의 옷자락을 보았어야 했습니다.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셨나요? 그러나 말은 거기까지다. 이제 여기서 몇 주 후에 다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장, 3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뵈기를 청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내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뒷모습은 볼 수 있지만 얼굴은 볼 수 없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걸 어떻게 합치나요? 그리고 다시, 저는 하나님의 얼굴에 대한 강조가 특히 가톨릭 신학의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의 실제적인 면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의 본성은 우리를 산 채로 튀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와 함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된 눈은 창조자의 실체를 볼 수 없다. 그가 현존한다는 느낌을 경험해 보시겠습니까? 예,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행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여호수아가 함께 식사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는 이 세 사람을 남겨두고 올라갑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떠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조슈아는 여기 더 높은 수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뒤에 남겨진 걸까요? 아니,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수준이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은 심각한 일이므로 하나님께 당신의 현실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존, 이것이 당신이 견딜 수 있는 전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왕국에 있나요? 바로 이거 야. 예.

문제는 그들이 아직도 왕국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대답이 확실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들은 Nadab과 Abihu가 훌륭한 감리교인과 같습니다.

감리교인들은 타락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천합니다. 아, 예, 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는 바로 그 사람이고, 우리는 그의 성격에 대해 추측할 수 있으며, 그의 수용력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사건의 성격상 하나님과의 진정한 친밀함은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동시에 그분이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좋아, 계속해서 노력하자. 우리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 즉 하나님의 마지막 계시에 이르렀습니다. 1장부터 15장까지는 무엇에 관한 계시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가르친 게 있나요? 무엇에 대한 계시인가요? 힘.

하나님의 능력, 곧 구원하시는 능력에 대한 계시입니다. 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16장부터 18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계시한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금별을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에 더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는 식량, 물, 보호 및 조직의 기본 요구 사항에 관심을 갖습니다.

19장부터 24장은 그분의 원칙을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25-40장에 와서 그분의 인격과 임재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 존재감, 그렇죠.

나는 몇 주 전에 서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출애굽의 진짜 목적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진정한 가나안이 아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백성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원, 속박으로부터의 구원, 신학적 어둠으로부터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는 소외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필요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전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온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고전적인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25장부터 40장까지의 이 마지막 장은 일종의 이상한 추가 기능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산에서 내려와 진영으로 오셨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아까 말했듯이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지침은 25~31개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35에서 40까지의 보고서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했습니다. 순서는 다르지만 시제만 다를 뿐 사실상 언어는 동일하다.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은 고사하고 한 번은 너무 심했어요, 잠깐만요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배의 중심을 정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은 또한 32년부터 34년까지의 금송아지 사이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지시대로 하세요. 금송아지, 내 방식대로 했어요. Frank Sinatra는 여기에 매우 잘 어울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냈습니다. 괜찮은. 25장부터 31장을 보면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연대순이 아닙니다. 적어도 레위기의 일부와 민수기의 처음 두 장은 이보다 먼저, 성막이 실제로 세워지기 전에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연대순으로 앞서서 성막을 세우는 일을 여기에 포함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을 제공합니다.

예. 이 모든 것의 목표는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루프를 닫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은 며칠 동안만 세워지고 다시 접혀서 가나안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 책과 그 계시, 가르침에 관한 한 모세는 여러분에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리고 40장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4. 그러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민수기에서 성막을 세우는 것에 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25시부터 31시까지입니다.

이 장의 서너 가지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아요. 이 첫 구절에서 가장 먼저 설명되는 것은 물질을 주는 것입니다. 예.

예. 그 중 하나가 성막에 관한 지시사항이다. 이 장에서 논의되는 또 다른 주요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여기에 포함하겠습니다. 건물과 관련된 모든 것. 예.

예.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제사장의 의복과 활동으로 세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관련하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뇨. 아, 실례합니다. 예.

예. 휘장과 막은 성막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는 제사장들과 관련하여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의복과 활동 외에? 그들의 봉헌.

예. 예. 전체 장이 그들의 봉헌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라틴어든 독일어든 흥미롭습니다. 이 용어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 수 있다면. 봉헌, 성화, 거룩하게 함.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것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봉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뭔가에 대해 모호한 생각만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룩하게 하라는 뜻이다. 아니요. 히브리어로도 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 라틴계인지 앵글로색슨계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둘 다 kadash 의 원인이 되는 단일 히브리어 단어의 번역입니다.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을 하나, 둘, 셋으로 포함시켰다. 이 사실이 여러분을 지나칠 수도 있지만 안식일 요구 사항으로 인해 해당 사항이 종료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좀 흥미롭네요.

그것은 성막이나 제사장 직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나기 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에는 거기까지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는 확실히 안식일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지만, 십계명 중 하나가 안식일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보고는 안식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둘 다에 있습니다.

좀 흥미롭네요. 좋아요. 우리가 성막을 이야기할 때 25~27절입니다. 지시사항의 이동 방향은 무엇입니까? 무엇부터 시작하나요? 자료를 전달한 후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주.

방주. 따라서 움직임은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진행됩니다. 우리는 안뜰에 대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움직임, 그 움직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곧 언약의 돌판을 두는 곳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바깥쪽, 궁극적으로 인클로저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어떤 색상이 특히 강조되나요? 좋아요. 금. 파란색이 들었어요.

하얀색.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하나 더. 은.

네, 동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몬드 아래에서 다룰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 목록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예. 금과 은. 값.

높은 가치. 왕족. 왕권.

왕족. 왕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여기에는 지루한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다양성. 모두를 위한 것.

하나님은 결코 지루하지 않으십니다. 예,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지루함의 한계점이 낮습니다. 하지만 다른 모든 것, 왕족, 순수함, 평온함, 풍요로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각적 감각을 포함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배하기 위해 미적 감각을 잘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참여시키겠습니다. 나는 매우 낮은 교회 배경 출신입니다.

시골 감리교회에 갔다. 우리는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금은 폐쇄됐는데, 저 창문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그러나 나는 시각적인 측면이 거의 없는 현대 예배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각적이죠. 80암페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성역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 나에게서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강당에서 만납니다. 흥미로운.

좋아요. 내 생각에 성막에 대한 가장 흥미로운 시각화는 폴 키나(Paul Kina)라는 사람이 그린 것입니다. 그 책의 제목은 시내 광야의 하나님의 장막이다.

그리고 여기 그의 시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가능한 한 빨리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성막의 다양한 시각화를 볼 때, 예를 들어 여기 이 휘장의 디자인과 관련하여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는 디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 또 다른 것은 땅 위에 제단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시각화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질문은 재로 무엇을 하느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중간쯤에 격자가 있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에는 다양성에 대한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깥뜰의 크기는 100피트 x 50피트입니다. 대칭은 분명히 이것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연이 아닙니다. 뜰의 기둥, 돛쇠 바닥판, 은머리, 아카시아나무 등은 저자의 말대로 매우 단단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나무입니다. 이 전면 조명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응, 고마워요. 응.

즉 번제의 어린양을 시각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클로즈업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은 당나귀를 가져오려고 하는데 제사장은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당나귀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다시, 이 바깥 휘장이 항상 닫혀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이 밖에 서서 안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서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의 뜰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장막은 항상 닫혀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부 장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죽은 동물을 도살하기 위해 그 위에 놓는 벤치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황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기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황소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곳, 냄새나는 곳.

음-흠. 응. 여기 그의 제단 시각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New Living Translation에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글썬요, 저는 New International Version의 Exodus 작업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설명이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면서 많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흥미로운 의견 차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아마도 정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에 이 격자가 중간에 있습니다. 공기 흐름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위해 외부에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일부 설명은 약간 불확실합니다. 죄에 대한 회개는 늦대야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카나가 황소를 상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황소는 이와 같은 지지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텍스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황소만한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세례의 일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회개하지 않은 죄와 부정함 상태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정결의 상징인 것은 확실합니다. 아니 아니.

본문에는 손과 얼굴을 씻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베일을 잡고 있는 금도금 기둥이 전면을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일종의 성령 세례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그렇다면 표지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아마도 오소리 가족으로 덮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양한 버전을 읽어보면 이에 대한 흥미로운 다양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돌고래 가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누군가가 대답했습니다. 아, 분명히 그들이 지나가던 중에 물에서 돌고래 몇 마리를 잡아냈어요.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의문점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외부 덮개입니다.

그 밑에는 붉게 물들인 숫양 가족이 피로 뒤덮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염소 털로 덮은 덮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진홍색, 보라색, 파란색으로 수놓은 아마포가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 번, 그것이 철저히 자수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가장 안쪽 덮개입니다. 여기에는 바깥쪽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인 분향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부 베일이 있습니다. 4개의 기둥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찢어진 휘장입니다. 좋아요. 그것이 찢어진 휘장입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들어본 최대 수치는 6인치입니다. 금실과 은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쉽게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아닙니다. 그것은 금속 메쉬가 아니었습니다. 안쪽 기둥에는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돛쇠 바닥판이 있는데 그 아래에는 은받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가운데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막대가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네 개의 고리를 통해 외부로 나가는 막대가 있습니다. 나는 솔직히 이 은 베이스가 바닥에서 서로 맞물릴 만큼 충분히 넓은지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이 패널들이 서로 맞붙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의 패널이 하나의 은색 바닥글 위에 서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다음 은색 바닥글이 둘 사이의 구분선을 가로질러 서로 고정되도록 도왔습니다. 여기 우리는 방 자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황금 램프 스탠드. 촛대는 매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촛불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램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진설병 상과 분향단. 빵 위에 유향 향아리가 있는 진설빵 테이블.

내가 말했듯이, 내 생각엔 그가 정말로 잘못 생각한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맨 위에는 아몬드 봉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몬드 새싹 위에 램프가 앉을 수 있습니다.

램프는 심지가 늘어서 접시의 기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자리가 있는 이와 같은 얇은 접시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에 불을 붙이면 접시에 있는 기름이 소모됩니다. 그것들은 램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쏟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시의 가장자리가 안쪽과 안쪽으로 바뀌어 그리스도 시대에는 중앙에 구멍이 있는 이와 같은 얇고 작은 타원형이 생길 것입니다. 상단과 가장자리에 또 다른 구멍이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러므로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구멍이 있고, 심지를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이것이 열 처녀가 등불로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후기 로마 시대의 어떤 것들은 여기 뒷면에 고리가 있고, 옆에서 보면 들고 다니기 위한 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등잔 일곱 개가 거기 아몬드꽃 꼭대기에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금촛대가 아니라 금등잔대이다. 가장 안쪽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서 있었습니까. 내부 베일을 지탱하는 기둥.

그리고 이제 이것은 뒷벽을 떼어내고 반대편에서 지성소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룹에 대한 그의 환상입니다.

루터가 속죄소로 번역한 덮개와 그룹은 하나의 금 조각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망치로 쳐서 하나의 조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가 날개를 가지고 상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룹의 모습을 가장 다양하게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그들이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 날개가 닿아 있고, 그 날개가 언약궤 위에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들에 대한 실제적인 묘사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의 좋은 시각화이고 아마도 12개의 다른 시각화가 있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두 돌판과 십계명과 만나 향아리가 싹난 아론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옷의 모습입니다. 그 안에는 긴 겹옷이 있고 그 위에는 흰 겹옷이 있고 그 위에는 청색 속옷이 있으니 곧 에봇이더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길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에봇은 본질적으로 앞치마입니다.

이번에도 금, 은, 흰색, 파란색, 빨간색, 보라색으로 아름답게 수놓았습니다. 맞습니다. 쪽 올라가면 여기 어깨끈이 보입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집게가 있고 그 집게에는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있고 양쪽에는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여섯 개의 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 흔히 흉패라고 부르는데 어렸을 때 늘 생각했던 것이 와, 이 철제 흉패를 입은 대제사장은 뭐지? 내가 중세 군인들을 본 것처럼 말이죠. 보다 현대적인 번역에서는 종종 그것을 가슴 조각이라고 부릅니다. 또 에봇과 같은 천인 천으로 만들어서 접어서 주머니가 되고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뭉이 들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사용한다.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한 가지 제안은 큐브의 다양한 면에 검은색과 흰색이 있는 큐브였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던져서 흰색 두 개를 얻었다면 그렇습니다.

두 개를 던져서 검은색 두 개를 얻었을 때 그건 아니었습니다. 흑백이 있으면 다시 하세요. 그러나 가슴 부분에는 또 보석들과 지파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에도, 가슴에도 각 지파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새시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그가 에봇에서 묘사한 것과 정확히 같은 종류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의 터번 꼭대기에는 패가 새겨져 있는데, 이집트 주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러한 덮개가 내려져 있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이러한 계시물이 이렇게 안내되었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든 그들이 계속 서서 유지하기 위해 안내를

받아야만 했다는 일종의 가정입니다. 사막의 바람이 덮고 있는 것을 날려버려서 기둥에 세워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릅니다. 다시 말하지만, 흥미롭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하나씩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임재,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전달하는 신학적인 지침 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라고요? 네.

좋아요. 만약 우리가 다시 조명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몇 주 후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할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상징주의에 대해 더 자세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인 세 가족이 있으니 한 가족은 가구를 맡은 가족, 한 가족은 뜰을 맡은 가족, 또 한 가족은 성막을 맡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게르손, 고탓, 므라리 세 가족은 그러한 책임을 맡았고 아마도 그 일을 꽤 잘 해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몇 가지를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듯 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며, 이 성막의 문양은 이 시대 가나안 전역에 알려진 문양이다.

삼위일체 사원이라고 합니다. 바깥뜰이 있고 안쪽 방과 가장 안쪽 방이 있는데 가장 안쪽 방에는 우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발견한 모든 것들이 매우 비대칭적이라는 점이 나에게서는 흥미로웠습니다.

모서리가 정사각형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막 건물에 있는 것처럼 깔끔한 여러 인물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보이는 것보다 사물의 일반적인 형태의 관점에서 세부 사항을 올바르게 얻는 데 훨씬 더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항상 흥미로웠습니다.

좋아요, 왜 우상이 서 있었을 곳에 언약궤를 두었을까요? 좋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룹들 위에 너에게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언약궤를 사용합니까? 알립니다. 무엇을 상기시켜 주나요? 그가 그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이 그와 맺은 언약이라.

좋아요. 그는 남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속죄소는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속죄소요, 사람과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응. 이것들은 모두 좋습니다. 구원.

예. 언약의 계명은 다른 신이 아니니라.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몇 번 말했고 어쩌면 다시 상기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을 통제하는가? 정확히. 우상숭배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예.

우상숭배는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 세상의 힘을 조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러분에게 미국이 지구상의 어느 나라 못지않게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고 여러 번 말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이러한 힘을 조작할 수 있다고 믿기 위해 이러한 힘의 작은 조각상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종교이며, 우상은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종교의 중심에서 있습니다. 그러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언약, 곧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80도 다르다.

그들의 사원의 모양은 마치 이교 사원과 똑같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물건은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쪽 방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 종교와 이교 종교 사이에는 실제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읽는 많은 교과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Dennis Kinlaw에게서 배운 또 하나의 독창적인 생각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반드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간과 부부관계는 같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유사점이 아닙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히브리 종교의 본질은 주변 문화와의 차이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 메모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은 성육신 안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한 방에 우상이 없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를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금송아지부터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해서든 언약의 편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기대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분과 언약을 맺는 것은 그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좋아요, 당신을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 의복이... 글썄요, 다른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기서 성막과 관련하여 신권과 관련된 지시 사항이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마음에 다가가기 원하시기 때문에 성막에 관한 지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신권이 어떻게 그 모든 것에 들어맞습니까? 사람과 신 사이. 그들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알았어, 알았어. 중보 없이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함과 그 결과로 우리의 부정함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면전으로 직접 나아가는 것은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깨끗한 것 앞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이 있으면 짚보다 더 많은 것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불이 지푸라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리스 종교가 이것을 어렵듯이 이해했지만 수백 명의 중재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것이 저에게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조금 덜 거룩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조금 덜 거룩합니다. 그리고 76번은 전혀 거룩하지 않지만 우리보다 조금 더 거룩합니다. 그들은 그 정도를 이해했습니다.

중재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하나님께 대표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대표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보자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좋아요. 예.

예. 정확히. 그래서 제가 케나와 함께 가는 곳은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인간 중보자가 처리해야 할 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아,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필요가 없는 중재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속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입는 옷에 대한 이 엄청난 매력, 그리고 다시 3주 정도 후에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보고서에서 저는 이것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관유를 다루는 특정 항목의 흥미로운 방식은 우리가 말했듯이 거기의 순서를 보면 방주에서 뜰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아주 깔끔하게 움직입니다. 남겨진 것들.

관유, 분향단, 수고, 향을 만드는 것, 그 모든 것이 제사장의 일이다. 그것이 그곳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일의 거의 세 장이 사제의 활동에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목적은 우리를 진정한 중재자를 준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도 카톨릭 교회에 기독교 사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의 제사장직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글썄요, 제가 그 언어에 전적으로 만족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신부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에는 기독교 성직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만은 나만의 신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를 하느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 주는 사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느니라.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내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자, 그건 만트라가 아닙니다. 맵소사, 나에겐 새 BMW가 필요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는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의 위임장의 이름으로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기도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에게 새로운 BMW를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네가 그렇게 말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아니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준 마법의 주문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때마다 나를 통해 나로서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좋아요, 그 시점에서 멈추겠습니다.

아직 이것으로 종이비행기를 만들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는 이들 중 일부를 언급할 것입니다.

자, 널 보내기 전에 우리 현충일에 만날까 말까 생각해봤어? 투표를 한번 볼까요? 현충일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좋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됩니까? 좋아요.

우림과 둠뭉은 흑백과 백면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사실 멜이 나한테 휴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야.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한테는 이게 재미있다. Karen은 때때로 댓글을 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녁 식사할 때 너 너무 끌려갔잖아." 하지만 당신이 여기에 왔고 뭔가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다. 사실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주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즐거운 한 주 보내세요.

이것은 출애굽기에 대해 가르치는 Dr. John Oswalt입니다. 13회, 출애굽기 25-31장입니다.